



“달라이라마 방한, 종교계가 함께 ‘국민 축제’ 만들어야”



박병기 조성택 김근수

6월 2일 ‘한국불교와 달라이라마 국제포럼’ 서

달라이라마는 왜, 어떻게 방한해야만 하는가? 어른이 ‘달라이라마 방한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언제일까’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불교계는 ‘달라이라마가 왜 한국 사회에 필요한지, 또 방한이 성사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다 심화된 고민을 시작했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공동대표 금강, 이하 방한추진회)는 6월 2일 ‘한국 불교와 달라이라마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편집인, 이향순 미국 조지아대 교수,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달라이라마 방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성택 교수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며 ‘분명한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사회가 내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에선 안 된다”며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닌, 세계인에

게 희망의 빛을 주는 달라이라마의 행보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주체 의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이웃종교인, 나아가 비종교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달라이라마 방한을 국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성택·박병기·김근수 등 발제 달라이라마 방한 의미 등 의견 개진 “추진회 가톨릭·개신교 포함” 제프리 홉킨스 교수 기조강연도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편집인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편집인은 “방한추진회에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를 포함시킨다면 불교를 넘어 온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달라이라마 방한 시 불교기관이 아닌 곳도 넉넉히 접촉하길 바란다. 이웃

종교인들을 명동성당에 불러놓고 교황이 잠시 인사만 건넌 가톨릭의 실수를 불교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편집인은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불교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편집인은 “교황 방한 이후 한국 가톨릭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는가? 아니다”고 단호히 말하며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 불교에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지만, 허탈감과 허무함을 더 깊이 던져 줄 수도 있다. 즉 달라이라마가 다녀가도 한국불교는 개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김 편집인은 ‘달라이라마 방한’시 빈민촌, 팽목항 등 고통 받는 현장을 찾을 것 ‘달라이라마는 불교기관이 아닌 이웃종교와도 접촉할 것’ ‘조정지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 등을 조언했다.

또한 박병기 교수는 세계가 직면한 윤리적 위기 속 ‘세계윤리’가 필연적 요청임을 시사하며, 달라이라마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모범인물이라고 꼽았다.

박 교수는 “세계윤리가 살아나기 위해선 누군가 그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하

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달라이라마”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달라이라마는 불교 지도자이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개방성과 관용의 미덕을 보여준다. 또한 명상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고 지혜를 찾아가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모든 윤리의 토대인 존재실상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추구하는 것을 달라이라마는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인물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방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제프리 홉킨스 미국 버니지아대 명예교수는 ‘달라이라마와 함께하는 나의 작업’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이밖에도 허우성 경희대 교수의 ‘달라이라마, 한국 불자들이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주고 받기 명상을 해야합니까’, 이향순 미국 조지아대 교수의 ‘달라이라마와 여성불교’ 등의 주제발표가 함께 진행됐다.

〈관련인터뷰 4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 배려 미흡... 성보문화재 인식 개선”

이영훈 國博 관장 30일 기자회견 열고 공식 사과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기획 전시회에서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헌다 불허로 불교계와 마찰을 빚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사진)은 5월 30일 열린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불교계 설명회’에서 그간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해명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한국 국보 반가사유상에 대한 불허 조치에 대해서는 불교계와 먼저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관장은 “외국 불교계와 교류 행사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일본 주쿠사(中宮寺) 개인법회에



상응하는 한국 불교 행사를 조계종 등 한국불교계와 미리 협의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스님과 불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교 등 종교문화재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식 개선과 종교 문화재에 대한 해당 종교계와의 협력 확대 등 후속 대책들도 발표했다.

이 관장은 “성보문화재를 수집, 조사, 연구할 때 대부분 미술사·미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졌다. 이후에는 불교 사상과 교류, 역사들을 망라해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세월호 아픔 잊지 않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이 광화문에 위치한 세월호 광장을 찾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자승 스님은 6월 1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동행서 모연한 자비나눔 기금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이 세월호 사고 이후 꾸준히 모아온 기금으로, 유가족 지원 총규모는 4억여원에 이른다. 노덕현 기자

‘소통’ 사라지고 남은 대불련 동문 갈등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가 발간한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연구결과물을 두고 대불련 회원과 동문회 간의 입장이 좁혀져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소통.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신만 남았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최근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학생 지표조사와 대불련 분석리포트> <대불련 지회 운영매뉴얼> <대불련 신규콘텐츠> 등 3종의 연구결과물을 발간했다. 연구결과물에는 대불련 122개 지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지도교수·지도법사 현황, 회칙 유무, 업무인수인계, 중앙행사 참여율, 중앙활동 분석 등을 통해 대불련 지회의 열악한 상황과 미미한 행사 참여율 등이 드러났고, 대불련 중앙조직 활동에 대한 감사(監査)성의 평가가 서술돼 있다. 총동문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5일 연구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불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불련은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51년 차부터 현 54년차까지의 중앙회장단 입장을 전했다.

회장단에 따르면 총동문회 연구결과물에 담긴 설문조사는 대불련이 직접 실

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54년차 중앙회장은 “총동문회에 문제제기 했지만 ‘대불련 활동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료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며 “연구결과물 배포 금지와 재검토를 요청한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대불련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지도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가득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후배들은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동문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고 역설했다.

반면 총동문회 측은 잘못된 부분을 알

려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불련의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중섭 사무총장은 “대불련과의 관계 속에서 그나마 약화시켜 기술한 것이다. 동문 입장에서 비난이 아닌 현 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라며 “틀린 부분이 있다면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논을 통해 문제점을 삭제하면 그건 분석리포트가 아닌 공동으로 책을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번은 잘못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불련은 배포 금지를 요청했지만 총동문회는 이미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물을 PDF로 제공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후배간의 다툼으로 인해 조직 화합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총동문회 <대불련 분석리포트> 발간예 대불련 “비전 無, 자료도용, 현황 왜곡”

시한 것이고 운영매뉴얼 일부도 제공했다. 지난해 대불련 중앙회장단 이체는 범주는 “대불련 발전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했지만 결과는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매뉴얼 도용이었다. 게다가 총동문회의 성과인양 홍보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종합적인 분석이 담기지 못한 결과물이 대불련 조직력에 미칠 영향

“종교인들, 사명감 갖고 성소수자 보듬어야”

사회노동위, 5월 27일 ‘성소수자 부모 초청법회’ 개최

5월 27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용)가 주최한 ‘성소수자 부모 초청 법회’ 서 사회노동위원 효록 스님은 성소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역할이라 역설했다. 이는 최근 일부종교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과 차별을 일삼는 데 대한 따끔한 일침인 동시에, 방관시해 온 불교계에 대한 자조의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호주·뉴질랜드·네덜 등 국가에선 여러 성별관에 ‘제3의 성’을 표기하고 있다. 특히 네덜은 ‘제3의 성’을 표기한 주민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2011년 세계 인구센서스 사상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효록 스님은 “세계 최빈국 네덜도 성소수자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변화가 찾아올 거라 믿는다”며 “이를 위해선 나와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 후 증생제도 서원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은 이를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성소수자 부모 및 성소수자 10여 명과 사회노동위원 스님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불교여래종 인왕 대중사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

歸依 三寶 하옵고

지난 5월 28일 입적하신 인왕 대중사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6월 1일 옥천 대약사에서 엄숙히 봉행 하였습니다.

먼 길을 직접 찾아주셔서 인왕 대중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하여주시는 중단협의회 부회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각 중단 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대중포교를 위해 헌신하신 인왕 대중사님의 유훈을 계승하고 받들어 여래종도 모두는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하여 불법 흥포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불기 2560년 6월 2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전 종도 합장

추모제 일정

초재	6월 3일	10시	금강 대약사사
2 재	6월 10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3 재	6월 17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4 재	6월 24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5 재	7월 1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6 재	7월 8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49재	7월 15일	10시	남한산성 약사사

문의 :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010-3539-4692